

케이스탯

2021년 10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평가, 부정평가 팽팽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지속 우위
- _ 정부 신뢰도 : 반등세 꺾이고 주춤 양상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지속 유지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소폭 하락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소폭 감소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지속 우세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우위 흐름 확고
- _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급격히 늘어

■ 10월 특별지표 :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

- _ 사회 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0%
- _ 개인 공정성 평가 : 능력 ‘알맞게’ 50% vs ‘낮게’ 49%
- _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2%
- _ 사회적 약자 지원 : ‘동의’ 64% vs ‘비동의’ 36%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10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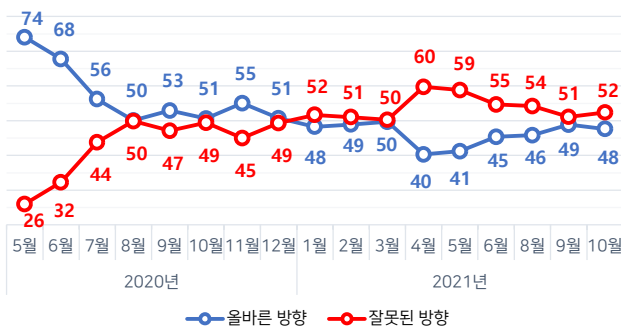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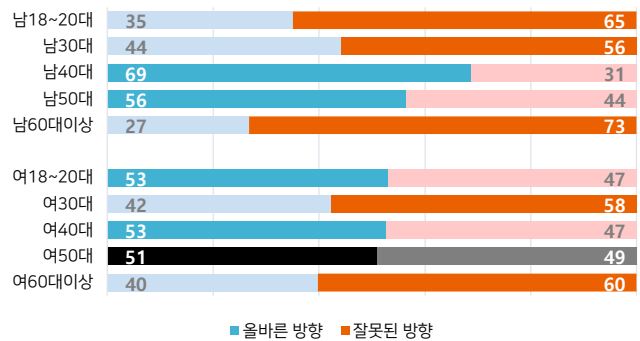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긍정평가, 부정평가 팽팽

-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10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8% vs ‘잘못된 방향’ 52%로 나타남
- 계층별로 우세한 의견이 다른데, ‘올바른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중간층 등임
 - 긍정, 부정의견이 비슷한 계층은 △여자 50대 △서울, 충청, 호남, PK 등임
- ‘잘못된 방향’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T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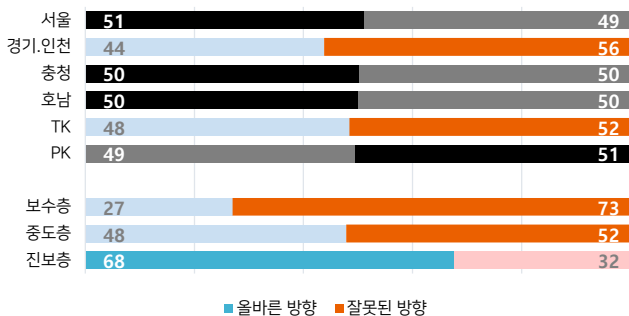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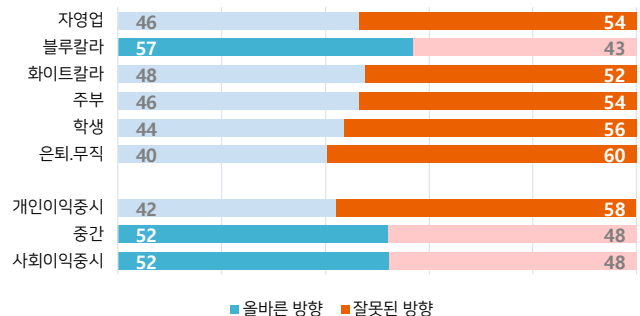
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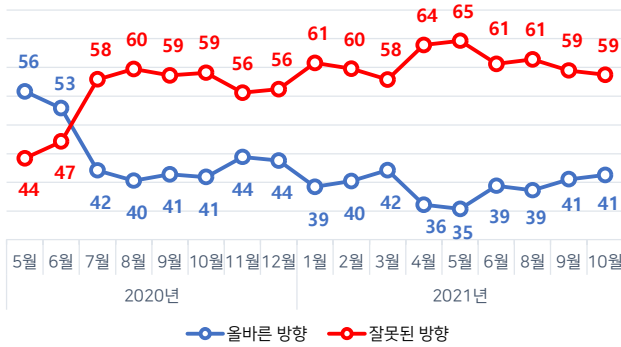
Kstat Point

- ☑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하던 긍정평가 여론이 10월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임
 - : 계층별 우세 여론이 다르고 대부분 격차가 크지 않은 데서 보듯,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양상임
- ☑ 이러한 배경에는 ‘대장동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대장동 이슈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이재명 후보 연관성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
 - : 하지만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뚜렷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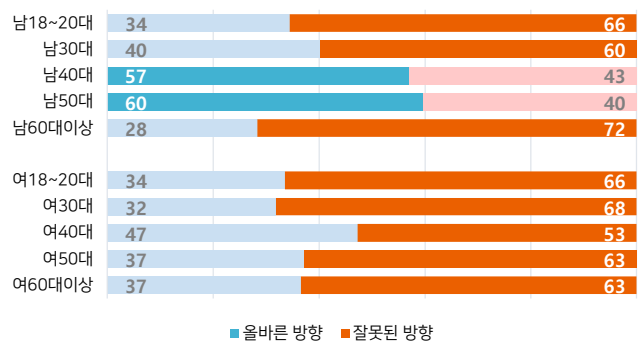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지속 우위

-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국민 여론은 10월에도 59%를 기록, 지속적인 우위를 보임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은 41%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와 진보층에 그침
 - 경제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평가를 하던 호남이 이번 조사에서는 50% vs 50%로 팽팽한 의견을 보임
- '잘못된 방향'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TK △보수층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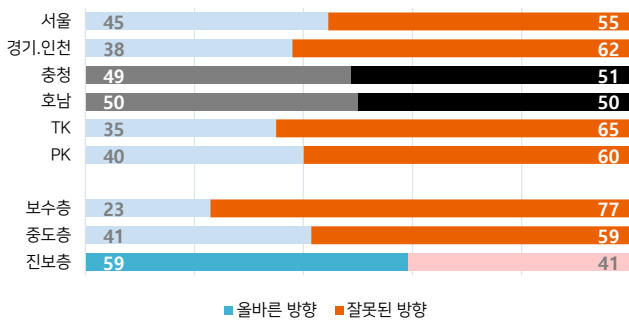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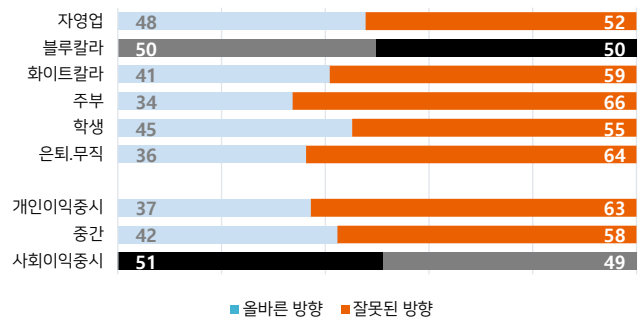
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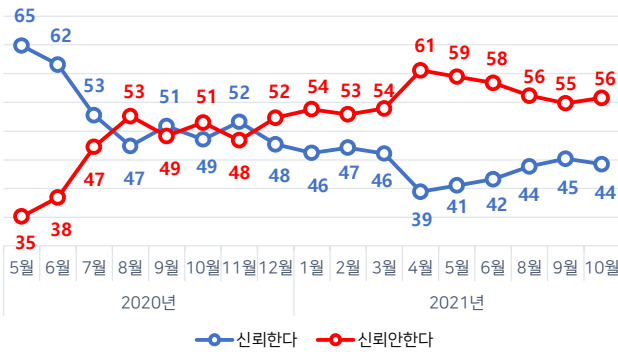
Kstat Point

- ☑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던 세계경제가 복합적인 악재 등장으로 주춤하고 있음
 - : '세계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부실화 위험 등 복합적인 악재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선진국 전망치도 하향 조정함
- ☑ 글로벌 경제 흐름에 민감한 한국 경제 역시 하방 위험이 증대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흐름과 '위드 코로나' 실시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기대감이 중첩되면서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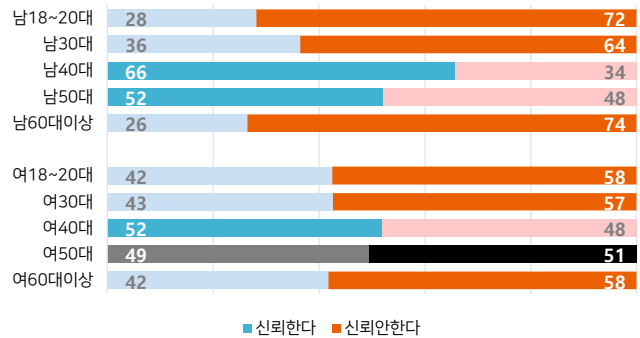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반등세 꺾이고 주춤 양상

-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 이후 매달 조금씩 상승해 왔으나, 10월에는 반등세가 꺾이면서 부정평가 여론과의 격차가 유지됨
 - 10월 정부 신뢰도는 44%를 기록, 전 달에 비해 1%p 하락함
- 계층별로는 전반적으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TK △보수층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등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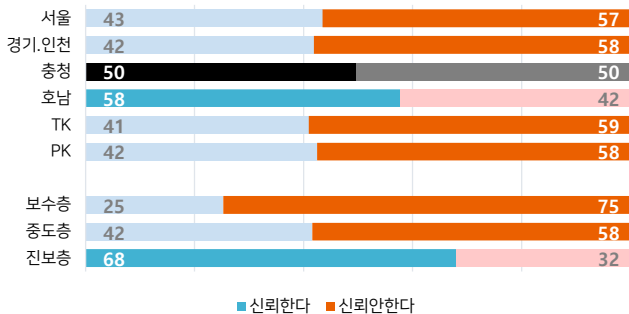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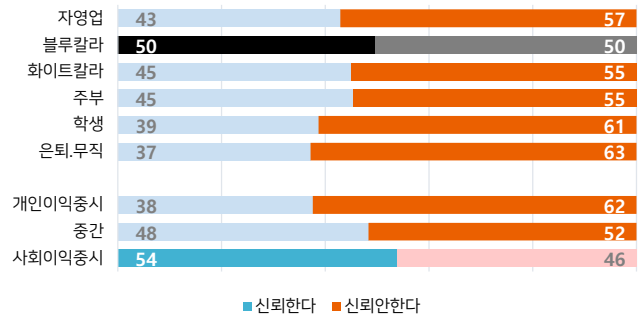
10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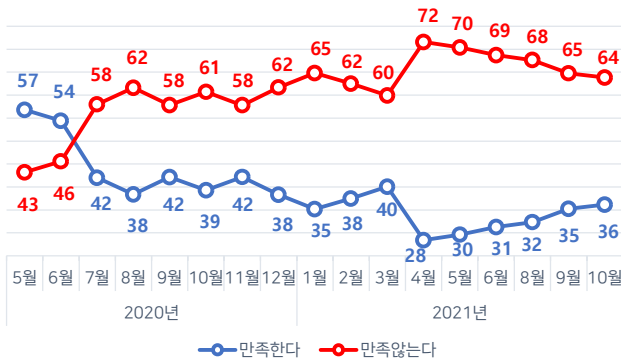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이슈’가 정부 신뢰도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부동산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앞에 국민 다수가 무기력함과 분노를 느끼고, 국정을 이끌고 있는 현 정부에 까지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흐름임
- ☑ 그러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현 정부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어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 덕’에 시달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달리 현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 덕’ 없이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것도 대장동 이슈 영향력을 축소시킨 이유임
- ☑ 앞으로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 정부 신뢰도는 횡보 또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대장동 이슈를 비롯해 향후 각종 이슈는 차기 대선 후보 간에, 그리고 정당 간에 치열한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임
 - :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경우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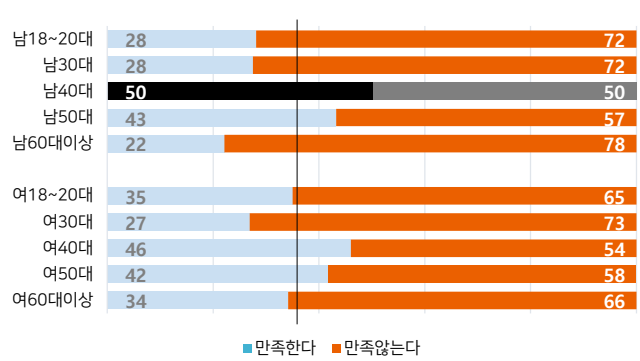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한다' 소폭 상승세 지속 유지

- 정부 정책에 '만족 않는다'는 부정평가가 우위를 점한 가운데, '만족한다'는 의견이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세를 보임
 - 10월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 달에 비해 1%p 상승, 36%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은 진보층에 그침
 - 남자 40대와 호남은 '만족한다' 50% vs '만족 않는다' 50%로 팽팽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30대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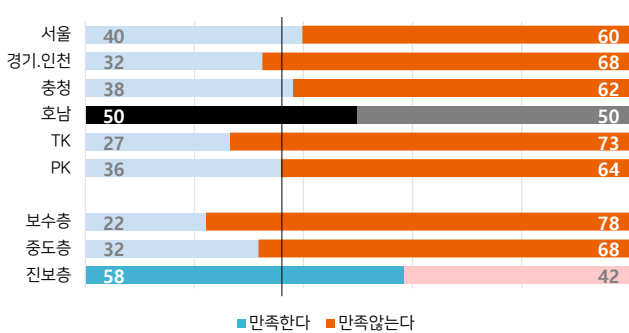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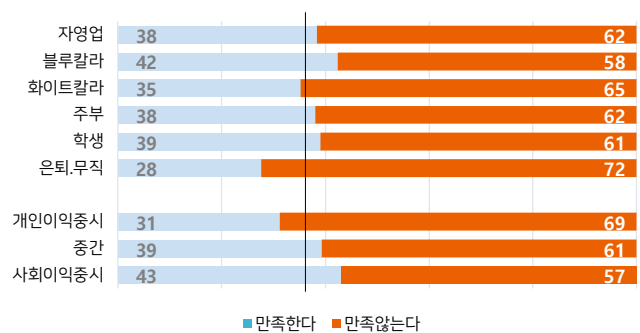
10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10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직종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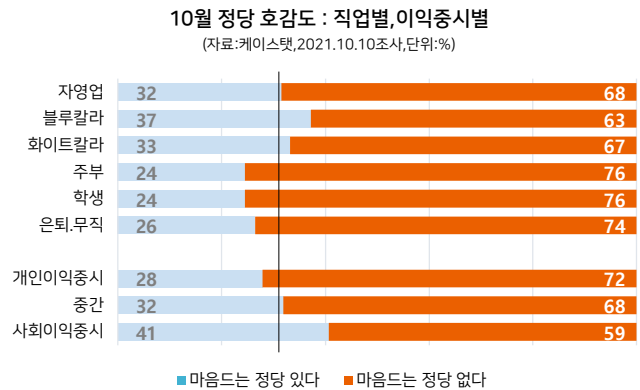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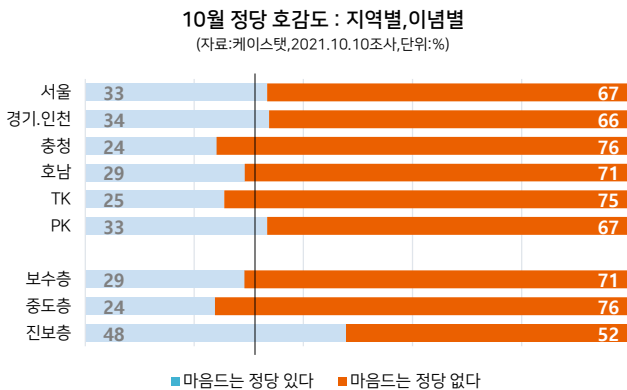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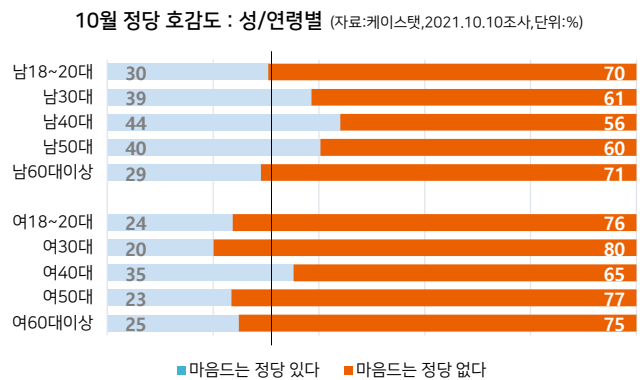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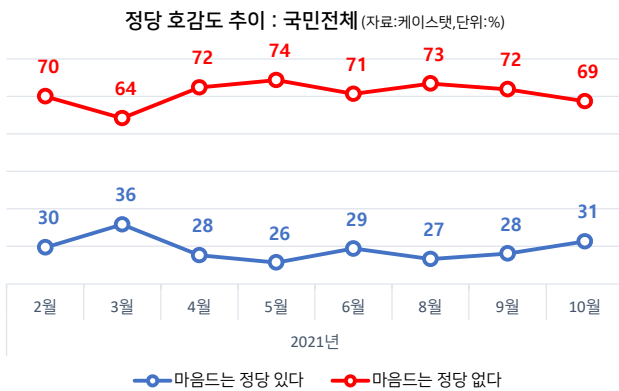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정책 만족도는 4월 최저치(28%)를 기록한 이후, 매달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함
- ☑ 모든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차기 대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대책밖에 없는데 비교적 방역대책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임
 - : 조사 시점인 10월 10일 이전을 돌아볼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뤄졌음
- ☑ 11월 정부 신뢰도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종식은 아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 전환점이 될 것인바, 국민적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소폭 하락

- 10월 조사에서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없다'는 의견이 소폭 하락함
 - 10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은 전 달에 비해 3%p 하락한 69%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여자 50대 △충청권 △중도층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50세대 △진보층 △블루칼라 종사자 △사회이직 중 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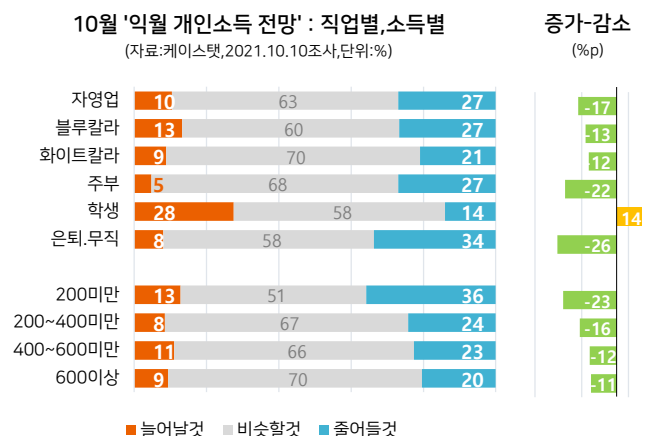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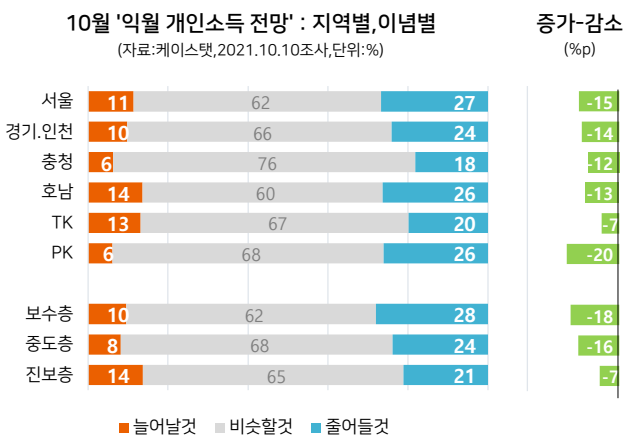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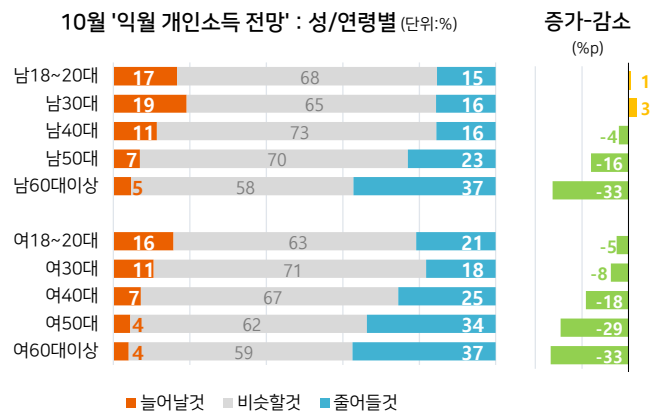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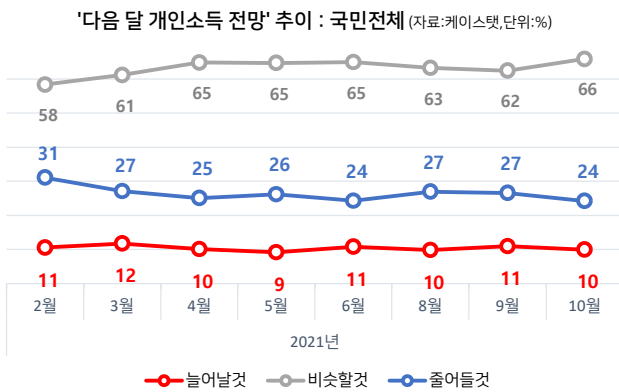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각종 대선 후보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유지, 이재명 후보 하락' 흐름이 뚜렷함
 - : 대장동 이슈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에 대해 이재명 지지층 중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임
- ☑ 주목되는 지점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뿐 국민의힘 후보로 지지를 바꾼 것은 아님
 - : 이러한 배경에는 진보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 호감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진보층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하기에 이재명 후보 개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줄어들 것' 소폭 감소

- 국민 다수는 다음 달 개인 소득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전 달에 비해 3%p 하락한 24%를 기록하면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소폭 상승함
 -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10%에 그침
- 국민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2%p 하락한 -14%p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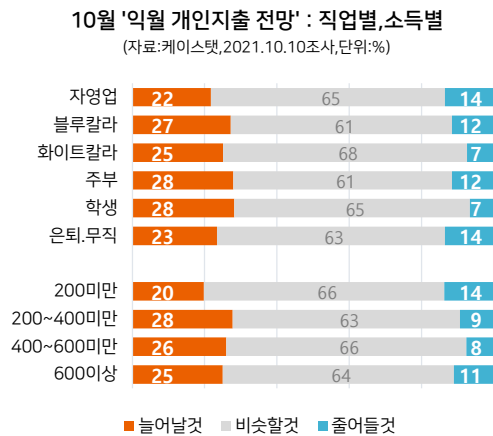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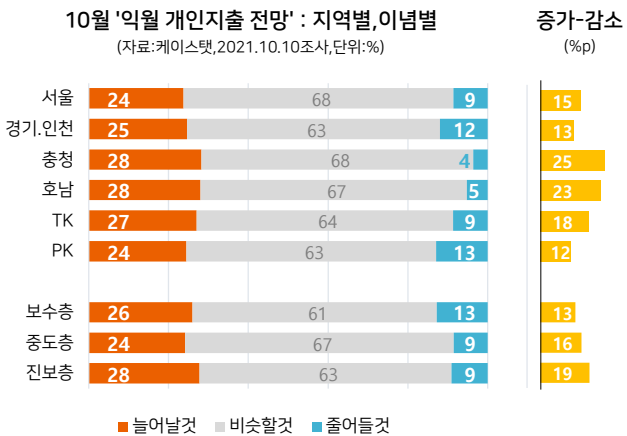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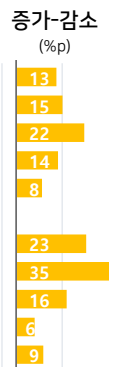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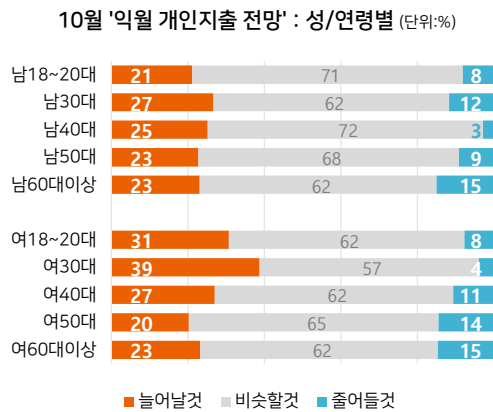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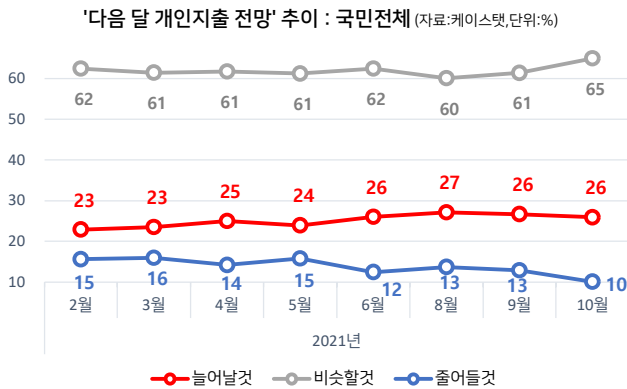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은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어 실질적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 11월은 앞서 경제 방향성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와 '위드 코로나' 시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는 달인데, 국민들이 어떤 요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주목됨
 - : 전자에 반응할 경우 부정 전망이 우세하고, 후자에 반응할 경우 긍정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늘어날 것' 지속 우세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월 대비 4%p 증가하고, '지금보다 줄어든 것'은 10%로 조사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6%p를 기록, 전월 대비 2%p 증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든 것)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차이가 큰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30세대 △충청, 호남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자영업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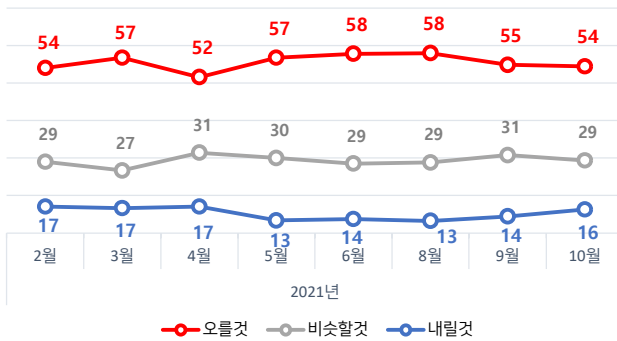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금까지의 '다음 달 소득·지출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높음
 - : 중간에 위치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비율적으로는 가장 많은데, 이 역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심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응답 범주에 속함
- ☑ 위축된 경제심리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
 - : 11월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내년 1월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어떤 계기를 맞아 개선될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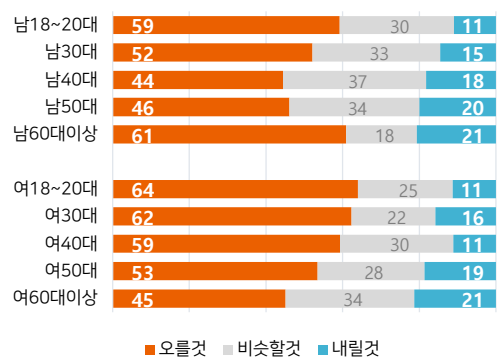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상승 전망' 우위 흐름 확고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한결같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10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54%로 과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지금과 비슷할 것' 29%, '지금보다 내릴 것' 16% 등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40세대 △충청, TK, PK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60대이상 △호남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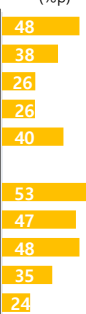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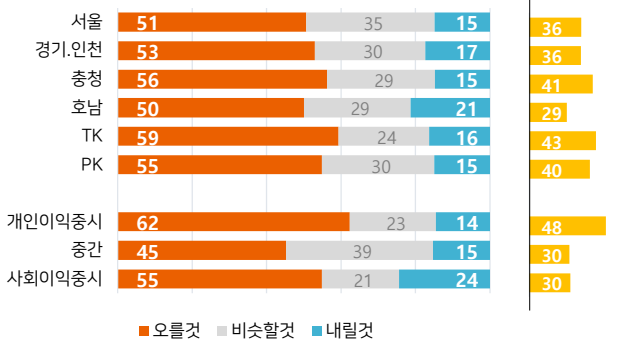
10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성/연령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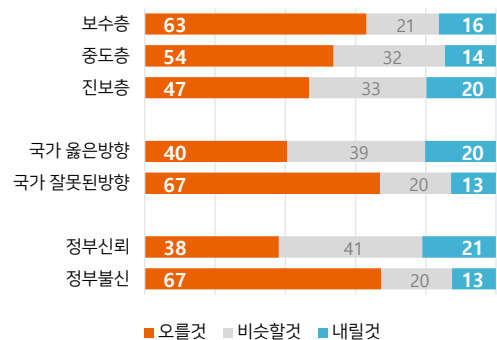
10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상승-하락 (%p)



10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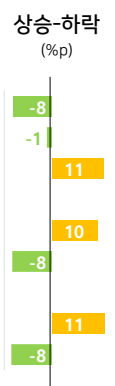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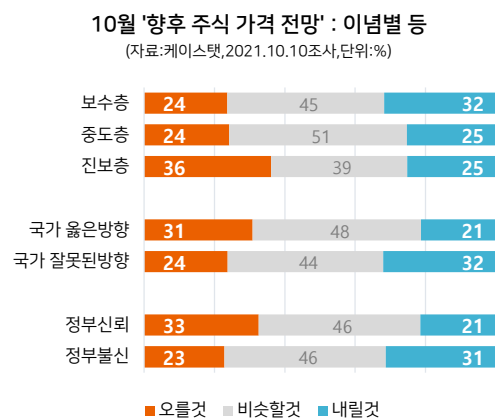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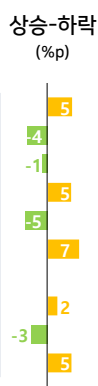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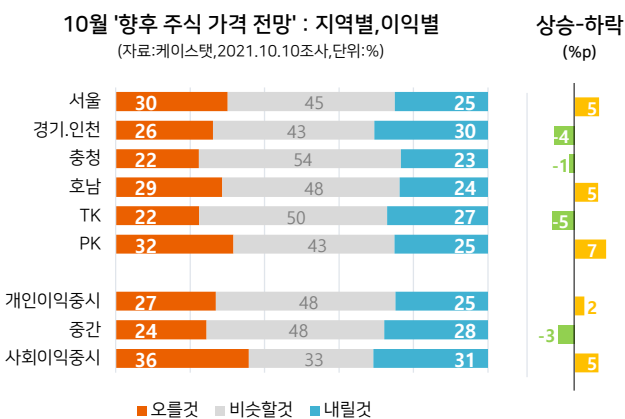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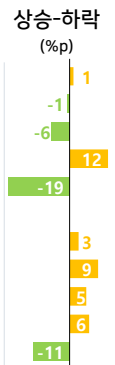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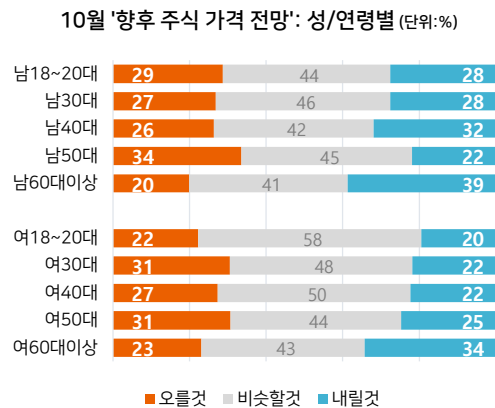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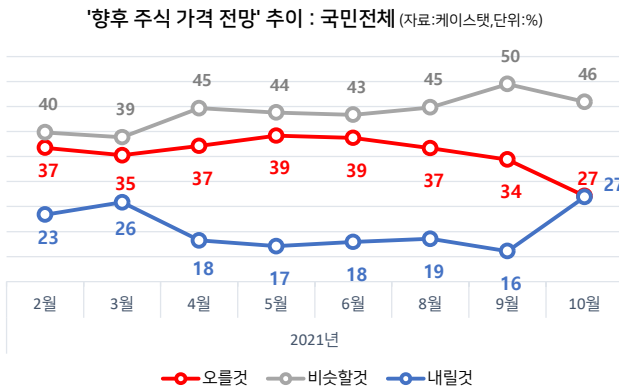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이 확고한 우위 흐름을 보임
- ☑ 실제로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지난 9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10월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2% 상승함
 - 전국적으로는 전월 0.96%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은 여전히 상승 폭이 확대됨(0.68%→0.72%)
- ☑ 한편, 정치적 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전망에 차이를 보이는 양상은 10월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즉, 현 정부에 긍정적인 계층(진보층 포함)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낮게 예상하고, 부정적인 계층(보수층 포함)은 높게 예상함

□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급격히 늘어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하락 전망이 급격히 늘어, 상승 전망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46%로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전월 대비 11%p 증가한 27%를 기록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같은 수치를 보임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계층별로 차이가 보임
 - 지난 9월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상승 전망)했지만, 10월은 뚜렷하게 다른 양상임
- '차이'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대 △여자 2050세대 △서울, 호남, PK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진보층 △국가 '옳은 방향' 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임
- '차이'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계층은 △남자 3040세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충청, TK △이익중시 중간층 △보수층, 중도층 △국가 '잘못된 방향' 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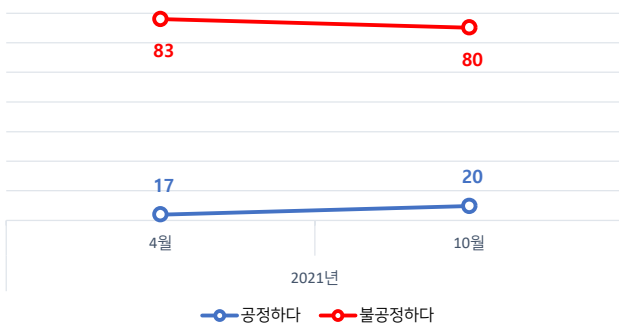
- ☑ 최근 주가는 국민 여론과 비슷하게 하향세를 나타냄
 -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2,850선까지 내리고, 증시가 3~6개월간 박스권 조정(박스 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 10월 19일 현재 코스피는 3,020선을 기록했지만 이는 10월 들어 처음 있는 일이고, 여전히 하향 전망이 우세함
- ☑ 국민 대다수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에 대한 박탈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0월 특별지표 :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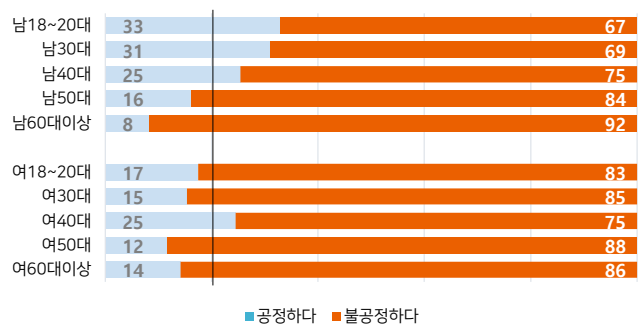
사회 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0%

-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조사에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83%를 기록했는데, 10월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인 80%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2030세대, 여자 5060세대 △경기.인천, TK △보수층 △주부, 은퇴.무직자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공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호남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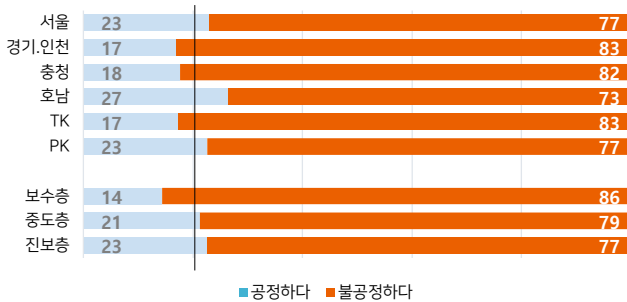
'사회 공정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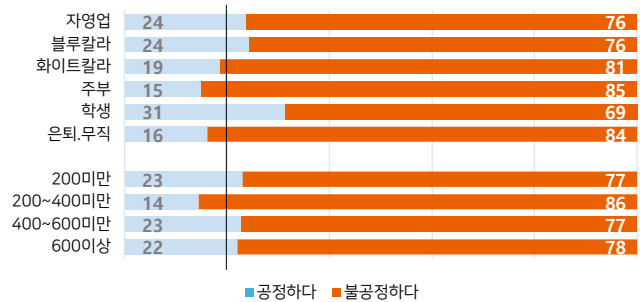
10월 '사회 공정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 공정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 공정성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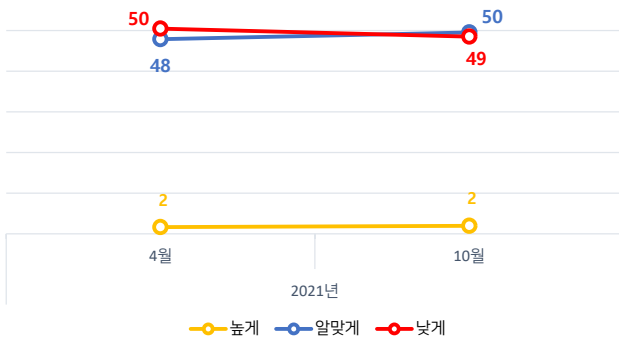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이에 따라 '공정성 획득'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함
- ☑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별 영향력'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인맥',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 '부모의 재력' 등으로 나타남
 - : 즉, '평가를 받는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의 외부 요인'(부모, 인맥 등)으로 평가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 : 또한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외부 요인에 힘입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임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2호 『'공정'에 대한 국민인식 심층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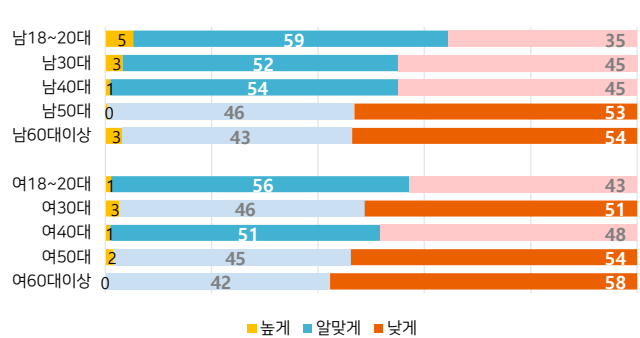
□ 개인 공정성 평가 : 능력 '알맞게' 50% vs '낮게' 49%

- 국민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50%이고,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49%로 비슷함
 -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은 2%에 그침
 -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 중 선택한 결과임
- 계층별로 우세한 응답이 다른데,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서울, 충청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 학생, 은퇴.무직자 △400만원 이상 소득 계층 등임
- 이에 비해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30대, 여자 5060세대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400만원 미만 소득 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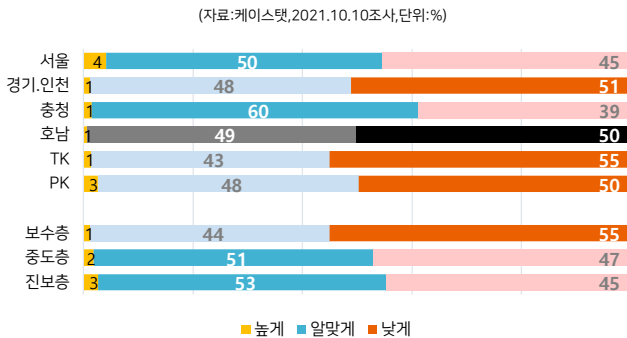
'개인 공정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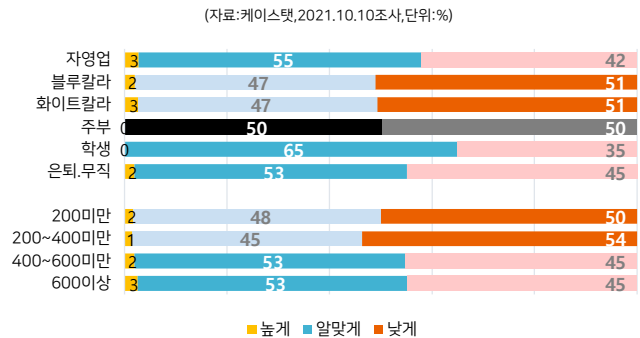
10월 '개인 공정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2021.10.10조사,단위:%)



10월 '개인 공정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개인 공정성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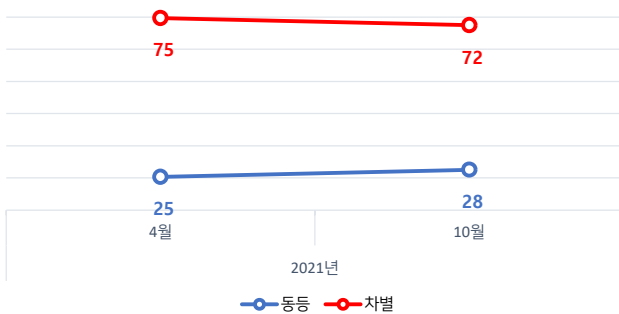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80%)고 생각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의견이 줄어들어(49%)
- ☑ 특히 남녀 18~20대는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특징을 보임
 - :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알맞게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고 만족한다는 의미로 읽힘
 - : 18~20대를 향해 '권리 의식'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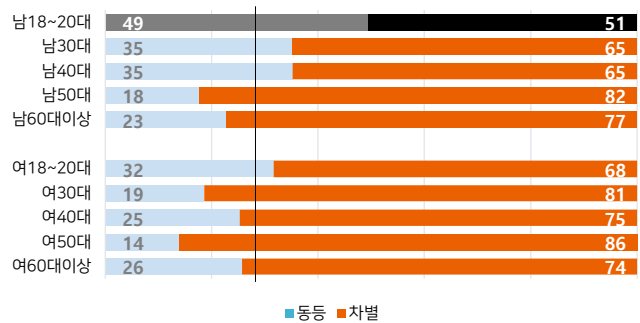
□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2%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 국민 중 72%는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함
 -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은 28%이고, '차별하고 있다'는 의견은 72%임
 - 지난 4월 조사결과와 유사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차별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3050세대 △경기.인천 △보수층 △주부 △200~4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18~20대 △PK △블루칼라, 학생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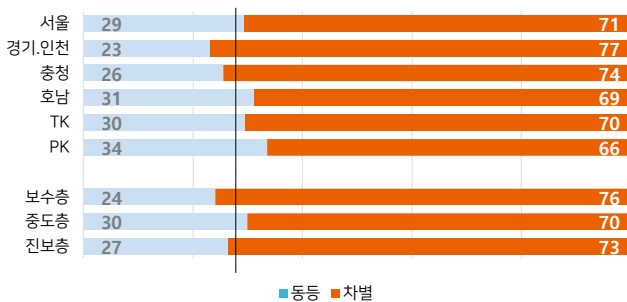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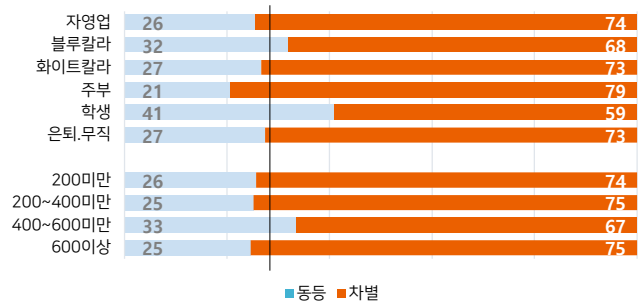
10월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성/연령별 (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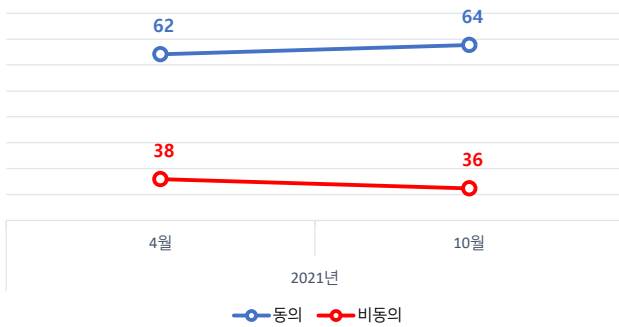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함
- ☑ 다만, 남녀 18~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음
 - : 남자는 49%로 매우 높고, 여자도 3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앞서 '개인 공정성 평가'에서도 남녀 18~20대는 다른 세대와 다른 의견을 피력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에서도 뚜렷하게 다른 의견을 보임
- ☑ 이렇듯 남녀 18~20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음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7호 『한국인 '세대 의식' 집중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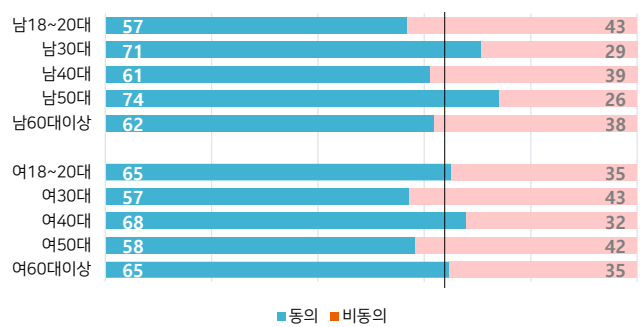
□ 사회적 약자 지원 : '동의' 64% vs '비동의' 36%

- 국민 다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고, 이러한 여론은 비교적 한결같음
 - “선생님은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4%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임
 - 지난 4월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해,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한결같은 것으로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동의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대 △여자 40대 △서울, PK △진보층 △자영업, 학생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30대, 여자 50대 △경기.인천, 호남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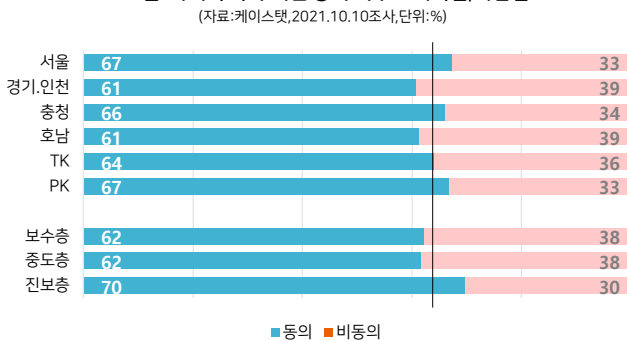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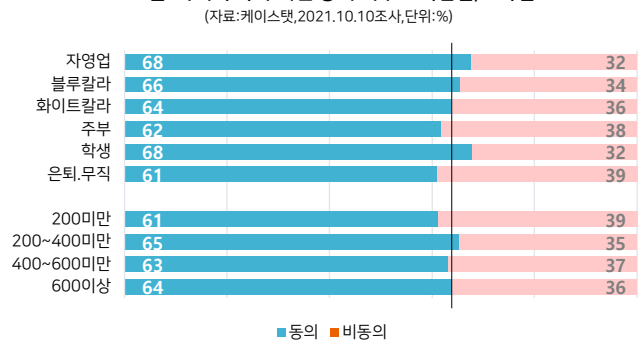
10월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성/연령별 (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10월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Kstat Point

- ☑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정'에 대한 개념은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이라는 인식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받는 것이 공정'이라는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임
 - : 전자는 '능력주의 공정'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름
 - : 후자는 '평등 원리 공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한계를 인정해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짐
- ☑ 현재 우리 국민 다수가 말하는 '공정'은 '평등 원리 공정'인 것으로 보임
 - : 다만, 남녀 18~20대(특히 남자 18~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능력주의 공정'을 말하는 비중이 높음
 - : 이는 18~20대의 '독특함'이라 말할 수 있는데, 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이 온전히 18~20대에 투영된 결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8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8호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라는 주제로 10월 2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